

광주·대구 'AG 공동유치' 다시 속도

광주시의회, 심의 유보 3개월만에 공동유치 동의안 원안 의결 대시민 여론조사·충분한 공론화 등 검토...대구시도 16일 처리

공론화 부족과 부실 용역 논란 등으로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아시게임' 공동유치가 재추진된다.

광주시의회는 6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시가 제출한 '2038 광주·대구 하계아시아시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공론화 부족과 부실 용역,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시의회 본회의 상정이 심의 유보(보류)된 지적 달여만이다.

공동유치 동의안이 이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동유치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동유치의 파트너인 대구시도 오는 16일 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두 도시의 공동유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앞서 동의안 처리의 3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광주·대구 공동유치위원회 재구성

▲대시민 여론조사 실시 ▲충분한 공론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고 내부 논의를 거쳐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 앞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공동유치 동의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공동유치 공론화와 유치 활동에서 예산 낭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의회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한체육회에 국제종합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 후보 도시로 확정되면 문화체육관광부 심의 및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재부의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2024년 하반기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공동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38년 유치를 추진 중인 광주·대구 하계아시아

게임은 45개국에서 1만5000여명이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38 광주·대구 AG 총사업비는 운영비 6077억원과 시설비 4739억원 등 국비를 포함해 최소한 1조817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는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 2014년 인천에 이어 국내 4번째 도전이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전남연구원이 수행한 연구 용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논란이 일었던 여론조사를 다시 하는 등 보고서를 보완해 지난달 26일 시민 보고회를 여는 등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의회에서 보완 요구했던 부분을 부족하나마 보완했고, 그 결과 아시아시게임 공동유치 동의안이 통과돼서 감사드린다"며 "아시아 게임은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고 대구와 광주 같이 한다는 점까지 봐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6일 오후 시청 접견실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경제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강기정 시장-이창용 한은 총재 '지역경제 발전 공조' 강화

강 시장 "AI 등 프로젝트 예산 전략 수립 협조를" 이 총재 "맞춤 지원"

광주시와 한국은행이 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시청에서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광주시청을 방문한 이창용 총재는 "최근 지자체와 함께 일하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지자체가 한국은행을 많이 활용해주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제조업 등 지역산업 규모가 크지 않아 인공지능(AI)산업과 창업에 집중할 계획인데, 관련 예산과 재정 전략을 수립할 때 한국은행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간부회의 등에서 한국은행이 국제경제 관련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테니 시 경제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와 국제경제 등을 연구하는 리서치풀이 있어 기획과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자체와 소통하며 정부 싱크탱크 기능을 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라며 "광주시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한국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 등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 차세대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

산·학·연·관 21개 기관·기업 참여 '진흥협' 출범...산업 자문 등

광주 차세대 배터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연·관이 손을 잡았다.

광주시는 6일 오후 남구 도시첨단산단에 있는 한국전기연구원 스마트그리드 본부에서 차세대 배터리 산업 진흥협의회 출범식을 열었다.

김재국 전남대학교 교수가 협의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세방리튬배터리·인셀·티디엘·아이비티 등 기업, 전남대·광주과학기술원·조선대·호남대 등 대학, 광주테크노파크·광주그린카진흥원·한국전 지산협업화·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전기연

구원·한국교통안전공단·광주전남연구원 등 21개 기관·대학·기업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앞으로 협력 체계를 통해 정책·기술 동향 공유, 국비 사업 기획·발굴, 산업육성 방안 논의·자문 등 역할을 할 예정이다.

김재국 위원장은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면서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광주시를 컨트롤타워로 산학연관이 힘을 합한다면 차세대 배터리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관광객 유치한 단체·기관에 인센티브

전남도, 해외 관광객 300만 목표...국제행사 2천만원→3천만원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와 전남 방문 관광객 증대를 위해 도내에서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기관 등에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코로나19 여파에서도 중·소규모 학회, 협회 등의 행사 유치에 집중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함께 전남도 방문의 해 시즌2를 맞아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2일 이상 회의, 학술대회, 세미나 등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학회, 협회, 기업, 기관 등이다. 특히 3개국 이상 외국인 5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인센티브를 지난해 2000만원에서 올해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3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해외 관광객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스 행사 유치 지원과 호남권 마이스 연계 지원 인센티브도 신규로 도입한다.

개최지가 미확정된 기관·단체의 국제행사를 전남으로 유치하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국제회의기획사(PCO), 여행사 등의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해 국제행사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호남권 마이스 연계 지원은 전남, 광주, 전북 3개 시·도가 함께 시행한다. 한 지역에서 개최하는 마이스 행사 후, 타 시·도 1박 이상 관광 시 숙박지 시·도에서 별도 인센티브로 최대 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는 호남권을 찾는 방문객에게 인근 지역 관광 자원을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광역 상생 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마이스 산업은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인센티브 지원 확대로 다양한 마이스 행사와 관광객을 유치해 전남 마이스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20억 들여 '맞춤 일자리' 발굴

시·군이 사업 제안 하면 선정·지원...17일까지 '동행 일자리' 공모

전남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지역에 최적화된 일자리 창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공모에 나선다. '동행 일자리사업'은 사·군 여건에 맞는 자율적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남도에서 자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사·군이 직접 또는 민간기관과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기획·제안하면 전남도에서 선정·지원한다.

시·군비 포함 총사업비 20억원을 들여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사업 ▲수요자 맞춤형 지원서비스 등 구인·구직 매칭 지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지원 ▲그밖에 취업 연계·지역 고용상황 개선사업 등 도내 예비 창업자와 구직자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군은 오는

17일까지 전남도 일자리경제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2월 말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선정 후 선정된 시·군은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22년에는 ▲광양 4060 신중년 경력분석 잡(job)매칭 ▲영암 문제 해결형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무안 고용 인프라 활성화 프로젝트 등 13개 시·군에서 17개 분야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380명이 취·창업에 달성했다.

김선주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절판 판매 중

이방인

문이당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권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점 판매 | 영풍문고 총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

문이당 | 15,000원